

陰陽 五行說에 對하야(二)

天台山人의 蒙을 啓함

趙憲泳

郭氏의 著書『中國 古代 社會史論』第一 篇下 篇 第一 章 辨證的 宇宙觀 이라는데에

『易經의 出發點은 元來 一種의 辨證觀이므로 易傳은 이 點에 對하야 極히 詳細한 觀察을 하고 있다』『거기에서는 世界를 進化하는것이라고 볼 뿐 아니라, 進化의 形象이 連環하는 形態를 取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 點은 우리가 注意할 價値가 있는 點이다……

모든事物은 다 제각기 極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絶對的 極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事物은 다 相對的 關係에 서있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絶對的 相對關係에 서있는 것이 아니오. 互相生成하고 互相克服하고 互相反撥하고 互相形成하는 것이며, 이러한 關係속에서 進展해가는 것이다……이것은 果然 興味깊은 宇宙觀이 아닌가.

이와 같이 모든 事物속에 矛盾을 보고 矛盾속에 變化를 보고 變化속에 全體로서의 世界를 보고 잇었다고 하는 것은 極히 正當한 辨證的 觀念이며, 이것은 易傳의 各篇을 通하야 到處에 散見되는것이다』

라고 하엿으니 이것은 確實히 郭씨가 陰陽五行說의 宇宙觀이 正當한것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第二篇 第三章에서 五行說을 評하되

『自然界及 人類社會에 있어서 對立된 諸要素가 交互로 相生相剋하야 漸次로 進展한다.

이것은 永遠히 □滅될 수 없는 眞理다.(筆者□點)現代의 모든 部門의 科學은 어느 것이든지 이 眞理의 眞됨을 證明하고있다.

例컨데

化學은…元素의 化合과 分解

物理學은…作用과 反作用, 陽電氣와 陰電氣

數學은…正數와 負數, 微分과 積分

社會科學은...階級鬭爭

……그것은 卽 陰陽五行說이다. 그것은精神的, 抽象的 內容에서 把握되어있다. 그러나 具體的 說明에 있어서는 너무나 幼稚하다. 이 點에서 또한 辨證法的인 一個의 例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郭沫若氏가 陰陽五行說을 評할때에 그 眞理임을 認證한것은 不誣의 事實이다. 그러면서도 郭氏가 陰陽五行說을 貶毀하라고 努力한것은 그 意圖가 다른 方面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